| 불자 세상보기 |

'대여 에티켓'은 이제 시대 요구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소유대신 대여, '렌털족' 확산
렌털시장 25조원 규모 급성장
시장 커지며 明暗도 함께 나와

한복 등 단기 대여품 중심으로
파손 後 배상않는 얌체들 급증
막무가내 소비자로 업체 '울상'

얌체 렌털, 공유경제 역행 행위
현 시대 걸 맞는 에티켓 갖춰야

요즘 무엇이든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서 쓰고 사는 렌털족들이 늘고 있다.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물품들을 대여함으로써 공유하는 시장을 '렌털시장'이라고 하는데 정수기, 비데, 안마기 같은 일상용품은 물론이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 기기, 드론 등의 첨단제품까지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없는 것 빼고는 다 빌릴 수 있는 현실을 사는 렌털족의 화두는 "사느냐 빌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지난해 25조 9천억 원으로 급성장한 렌털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렌털시장에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2020년에는 국내 렌털시장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내 렌털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나는 잘못된 렌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증가이고, 또 하나는 빌린 물품을 손상하고 배상하지 않는 렌털족의 확산이다. 이 중에서 특히 영세 상인을 울리는 얌체 렌털족들의 부족한 대여 에티켓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류나 유아용품, 렌터카, 돌잔치 용품 등을 빌려주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특히 대여기간이 짧은 업종에서 '대여 에티켓'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빌린 한복을 찢어놓고도 배상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대여 장난감을 훼손한 상태로 그냥 반납하는 등의 경우가 20~3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고 '나 몰라라' 막무가내로 버티는 소비자의 태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받은 심리적 상처로 가면성 우울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한다.

혹자는 대여 에티켓이 부족한 이들을 '공유 경제 사회의 적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렌털의 기반인 "공유경제는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 불황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임을 강조한다. 공유경제가 21세기형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로서 꼴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에 역행하는 행동은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택수 한국사회문화원장은 "공유 경제와 렌털 산업규모는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 이에 걸맞은 에티켓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낯선 경향에 대한 심리 행동적 반응이 아직은 덜 습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덜 습관화된 행동의 이면을 보면 그 곳에는 욕심에 기반한 '자기 권리' 주장이 과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의무'의 한계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선택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뢰기나퇴터는 그의 책에서 "붓다의 가르침대로 이웃에 연민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자. 나누고 빌리고 교환하면 물질적으로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새로워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모든 대여 물품에는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무한한 연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빌림'을 통해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돌려줌'을 통해 나의 고마움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가 새롭고 단단한 관계인 것이다.

바로 이런 바른 사유를 먼저 공유해야 진정한 공유경제의 토대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누고 빌리는 일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좋은 일이라도 그에 수반된 바른 나눔의 예절을 모른다면 관계가 상처로 나뉘고 빌림이 관계를 벌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제라도 '대여'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공유하여 '에티켓 부족'의 폐해로 상처 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양성평등사회와 그 적들

"여자들 국이나 끓이지 대학을 오네", "○양은 줘도 안 먹는 듯", "○○여고 김○○ 성인식 시켜줘야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말 그대로 '여성혐오'로 점철돼 있다. 이 같은 대화는 누가 나눈 것일까. 부끄럽게도 조계종립 동국대의 한 학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뤄진 남학생들의 대화다.

동국대 'A과 단톡방 사건 임시대책위원회'는 3월 21일 페이스북 '동국대 대나무숲'을 통해 이 학과 남학생 11명이 2014년 1~4월 여성 20여 명에 대해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고 고발했다.

대책위원회는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교내 외의 모든 학우들도,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처리상황과 처벌, 대책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동국대는 해당 문제를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실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폐쇄적 성희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동국대 뿐만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관동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에서도 단톡방 성희롱으로 사회 문제가 됐다.

친한 친구들만을 초대해 구성하는 단톡방은 폐쇄성이 큰 장점이고, 이 안에서 이뤄진 대화들은 외부 유출이 어려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된다. '항심(恒心)'이 무심코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단톡방에서 은밀하게 여성을 품평하고 혐오하는 행위들이 노소(老小)를 불문하고 이뤄질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인식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에 기인한다.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성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가 말했듯이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이원제(性別二元制) 젠더 질서의 핵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 최근 한영외고 보건소식지가 문제가 됐다. 소식지에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좋을 때'와 '싫을 때'를 나열했는데,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이 좋은 이유로는 "여자가 강간당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었고,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것은 "힘든 군대 생활 안 해도 될 때", "데이트 비용 남자가 부담할 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혐오는 남녀 사이에서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강간 뉴스에 안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성적 지위가 낮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상도 가부장 젠더 질서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비대칭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김치녀'와 '된장녀'가 된다.

남성들의 폐쇄적 단톡방에서 성희롱은 여성혐오이자 멸시이다. "남성 집단의 연대를 위한 의식은 여성을 '공통의 희생자'화 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우에노의 비판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들에 그대로 부합된다.

양성평등은 이 같은 가부장적 여성혐오 문화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혹여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길. 여전히 한국사회는 진급과 임금에서 남성이 더 유리함을 인식하길 바란다. 비대칭적이고 불합리한 젠더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社說

'도반HC', 조계종 재정확충 계기되길

조계종이 사업지주회사 '도반HC(Holding Company)'를 공식 창업했다. ㈜도반HC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창업 선포식 및 사옥 개소식'을 거행하고, 창업 3년 내에 보유자본 50억원 ·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은 '도반HC'를 통해 다방면의 사업을 전개하고 종단 재정 확충에 나선다. 현재 조계종은 예산 대부분을 분담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분담금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단 자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반HC는 부서를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들어갔다. 10개 분야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반HC는 3년 내 순익을 30억 원으로 높이고 4~5개의 직접사업을 운영하며, 분야별 자회사를 10개 이상 갖춘다는 목표다. 3억 원 내외인 종단기여금 역시 15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다른 종교계는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가톨릭이다. 가톨릭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는 형태로 2004년 (주)평화드림을 설립해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의료 등의 물품구매, 건축, 레저, 상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2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조계종의 '도반HC' 설립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잘 운영될 경우 승려복지 등 큰 돈이 드는 종단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불자 대학생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도반H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기존 불교 업체들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공존과 상생의 기업으로 도반HC가 발전하길 바란다.

대학생 눈높이 포교가 희망이다

3월 입학철이면 대학 광장마다 진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대학 동아리들이 새내기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하고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여러 동아리들 중 새내기들의 선택을 받는 동아리는 극소수. 취업난에 대학 초년병부터 동아리 활동을 꺼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동아리, 특히 불교동아리는 소외돼왔다. 많은 불교동아리들이 회원수가 급감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불교동아리들 중 기존 인원의 두배에서 세배가 넘는 새내기를 모집한 동아리들이 있어 화제다. 그 비결을 알아보니 바로 명상과 템플스테이,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취업에 도움이 되는 봉사경력 등이었다.

불교동아리가 단순히 법회에 기반한 신행활동의 동아리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체험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실제 활동과정에서 실망하고 불교동아리 활동을 접을 수 있다. 하지만 새내기 포교 초기부터 호응이 높다는 것은 대학생 포교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이런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를 위해서는 대학생 포교 중심 단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뿐만 아니라 종단 안팎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명상 지도법사를 파견하고, 사찰 템플스테이도 불교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불교의 많은 재가불자, 그리고 스님들의 학창시절 일화를 접한다. 대학생 때부터 다져진 신심은 이들이 한국불교를 위해 원력을 세우는 자양분이 됐다. 이제 불교계는 대학생 포교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눈높이 포교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 ■ 예 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中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